

영국, 토양협회 급식관련정책 집행 촉구

영국토양협회(Soil Association)가 지난 3월 24일 실시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전역의 학교 간에 급식 제공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영국 정부가 영양기준에 대한 최저한도를 제시하여 급식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2주일 동안 영국토양협회는 영국 각지의 초등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지역교육기관(Local Education Authorities, LEA) 147곳 중 143곳을 조사했다. 이 중 일부는 비용을 비롯한 학교 급식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 보였으며, 일부는 조사 과정에서 태도 변화를 보였고, 79개 지역교육기관만이 완전한 응답을 했다.

조사 기관 중 4분의 3 이상이 아동 1인당 첨가하는 영양 성분에 50센트¹⁾ 미만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영국토양협회는 지난 2년 동안 이 기준은 최소 65센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조사에 응한 60% 정도의 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50%에 미치지 못했고, Oxfordshire 지방 같은 경우는 급식 제공율이 26%에 그쳤다. 이는 영국 아동 중 절반 이상이 점심시간에 제대로 된 식사(a hot meal)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 영국 요리 채널 진행자인 Jamie Oliver가 제안한 학교 급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비용을 의미한다.

영국토양협회의 정책담당관인 Peter Melchet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학교 급식에 관한 논의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하나는 급식의 영양 기준에 대한 기본 수준이고, 또 하나는 적정 수준의 식사의 질을 위해서 자금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Ruth Kelly(영국 교육부 장관)는 임기가 끝나는 2006년 9월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발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영국 환경, 농업 및 농촌개발부(Department of Environment, Farming and Rural Affairs, DEFRA)에서 2004년 10월에 발간한 “DEFRA PUBLIC SERVICE AGREEMENT TECHNICAL NOTE(이하 PSA)”는 학교 급식과 관련된 규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UR 당시 학교 급식을 예외 조항으로 하지 못한 결과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PSA 4.7 accessibility: a) 의무 교육 연령에 속하는 학생 중 특정 비율(%)과 b) 의무 교육 연령에 속하는 학생 중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 시간이 15-30분(초등학생), 20-40분(중학생) 소요되는 경우에는 무료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재료의 신선도, 운송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정의함으로써 학교 급식 관리와 국내 농산물 장려를 도모하고 있다.

자료: 영국토양협회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